‘적자 허덕’ 기아차 또 임금파업

오늘부터 강행… 기본급 12만8,805원 인상 등 요구

파업 손실액 800여억원… 장기화땐 지역경제 타격

기아차의 내수와 수출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차 노조가 임금협상과 관련해 3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해 지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투쟁으로 고용안정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파업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막대한 손실도 우려된다.

2일 기아차 광주공장과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3일 파업출정식과 함께 5일까지 주·야간 4시간씩, 6일 주·야 4시간과 퇴근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6일 이후 파업향방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나, 노조는 “회사는 해외공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신차종의 외부업체 이관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합의 명운을 걸고 중장기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조는 ▲기본급 12만8천805원(기본급 대비 8.91% 인상) ▲생계비 부족분(성과금) 200% 지급 ▲사내 모듈공장 유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시나리오대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광주공장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330여개의 협력업체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6월 파업으로 이미 1천400여대의 생산차질대수에 220억원의 손실을 입은데 이어 3~6일 부분파업에 따른 예상손실까지 합하면 4천여대, 62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협력업체 손실액은 15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사측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노동쟁의 자체를 부인한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파업장기화로 빚어진 손실 등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산업단지내 기아차 협력업체인 A사 관계자는 “6월 파업에 이어 임협파업이 계속되면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공장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면서 “납품량이 축소될 경우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월급은 평소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이중고’를 걱정했다.

B사 대표는 “광주공장의 파업은 1차→2차→3차 협력업체로 도미노처럼 이어져 영향이 적지않을 것”이라며 “자신들만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위해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파업은 정말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6월 내수 2만2천10대, 수출 9만471대 등 11만2천481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6월에 비해 내수 8.3%, 수출 1.8%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우체국보험 광주회관’ 건립 기공식이 2일 광주 상무지구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김준호 전남체신청장(왼쪽 네번째), 유영환 정보통신부차관(〃 다섯번째), 정경원 우정사업본부장(〃 여섯번째) 등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전남체신청 제공〉

우체국보험 광주회관 건립 기공식

〈조감도〉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는 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우체국보험 광주회관’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우체국보험 광주회관은 보험 적립금의 효율적 운용과 보험계약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09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453억원.

광주회관은 지하 3층·지상 16층(연면적 3만1천456㎡) 규모로, 우체국 금융 콜센터·비즈니스센터·기획전시실·의료 검진센터 등이 들어선다.

정경원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보험은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서울·부산·대구 등 3곳에 보험회관을 운영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름 방학엔 경제 배우세요”

광주YWCA 청소년캠프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경제의 기본 원리를 터득할 수 있게 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광주 YWCA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주 YWCA 청소년 경제·금융캠프’를 21일과 27일에 각각 연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합리적 경제·소비관을 형성하도록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놀이를 통해 경제와 금융의 기본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각자의 소비 및 경제 성향과 의사결정 방식을 돌아볼 수 있는 심리테스트와 모의 주식 투자 게임이 포함돼 있다.

또 참가자들은 백화점과 재래시장에서 각각 물건을 구입한 뒤 그 차이점을 대조하거나 재활용 장터에서 자신이 준비한 물건을 판매하며 판매 및 소비 체험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다단계 130만원 이상 물품 못판다

공정위, ‘판매자 준수안’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

다단계 판매업체는 판매원에게 물건가격의 35%를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130만원 이상의 고가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상품권 등을 판매하거나, 구입가격이 판매가격의 10%도 안되는 등 물품거래를 가장해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가 명백히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다단계판매자 준수기준(고시)’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준수기준안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준수기준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으며, 판매 보조용품 등 후원수당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매출액도 모두 다단계 판매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청약철회와 관련, 기간을 법정한도보다 축소해 판매원의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업체가 물품을 반환받은 뒤 3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다단계 업체가 대금을 돌려줄 때 물품대금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을 넘게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후원수당 산정기준을 바꾸려면 3개월 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후원수당은 물품가격의 35%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단계업체가 판매하는 개별물품의 가격은 13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업체의 구입가격이 판매가격의 10%도 안되거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것 등 물품거래를 가장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연합뉴스

암웨이, 다단계 판매 포기?

판매시스템 전면 재고

미국의 세계적인 직접판매 회사인 암웨이가 영국에서 판매 방식에 시비가 걸린 것을 계기로 기존의 판매 시스템을 전면 재고할 것이라고 회사측이 1일 밝혔다.

영국 신문 그랜드 래피츠 프레스가 이날 전한 바에 따르면 암웨이의 모회사인 알티코의 마이크 모흐 법률고문은 암웨이가 영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이를 계기로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선의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면서 그러나 “전세계 58개국 시장에서 동시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해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했다.

암웨이는 다단계 판매 방식이 영국 당국의 규제를 받아 새로운 판매인력 확충을 120일간 중단당했다. 또 회사가 제작한 판촉 문서와 테이프 판매도 금지됐다.

모흐는 영국 당국과의 시비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영국측에 “판매 시스템을 바꾼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당국은 지난 1년여 암웨이의 다단계 판매 방식을 조사해왔다.

/연합뉴스

“소비자 찾는 농산물 생산 주력 제값 판매로 농업인 이익 대변”

이덕수 농협전남본부장 취임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이 흔들림없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명품농산물을 육성,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일 취임하는 이덕수(56)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평범한 농산물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맛과 품질이 뛰어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보름 전 서울 모 할인점을 방문했다가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쌀’ 20㎏짜리 한 포대가 일반쌀보다 두배 가까운 6만9천원에 팔리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는 15년전 ‘쌀의 브랜드화’에 대한 필요성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세운 스타 농협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본부장은 재임기간 동안 명품농산물 육성과 함께 농산물 연합사업단 자리매김 등 에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농·축협 경영기반 구축, 청렴·투명한 농협구현 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농협창립 46주년, 통합농협창립 7주년을 맞아 농협이 ‘대한민국 유통넘버원, 금융넘버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땀흘려 함께 뛸 각오”라고 말했다.

강진출신으로 강진농고, 농협대, 서강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강진군지부장, 농협중앙회 여신부장 등을 역임했다. 부인 백은생씨와 2남을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열공’중

지난해 대우건설 인수로 몸집을 불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최근 집중적인 사원 재교육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2일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그룹 전략경영본부는 최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사 사옥의 문호아트홀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금호아시아나 전문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또 팀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금요경영특강’도 매달 두차례 실시하고 있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는 월요일만 빼곤 매일 강의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임직원의 업무 능력 극대화와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 강좌에서는 전략기획·금융·인사·디자인 광고 등 13개 부문의 해당 임직원들이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해 최근 이슈 및 실무 노하우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실무자들의 요구에 따라 강의 주제가 정해지고 강사는 주로 해당분야의 교수, 관련공무원, 타기업 업무 전문가 등으로 이뤄지며, 강의 외에도 담당자들간의 정보교류가 이어지는 철저한 실무 중심의 강좌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